



‘ 계통출하에 성공한 ,’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계통출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부가 있다.

전라선을 타고 서울에서 6시간 정도가면 영산강 어귀에 자리잡은 나주평야에 다다르게 된다. 영산강을 품에 안고 있는 나주는 전라남도 남서부지역의 중심지로 옛날에는 발라군(發羅郡), 금산군(錦山郡, 錦城郡) 등으로 불리어 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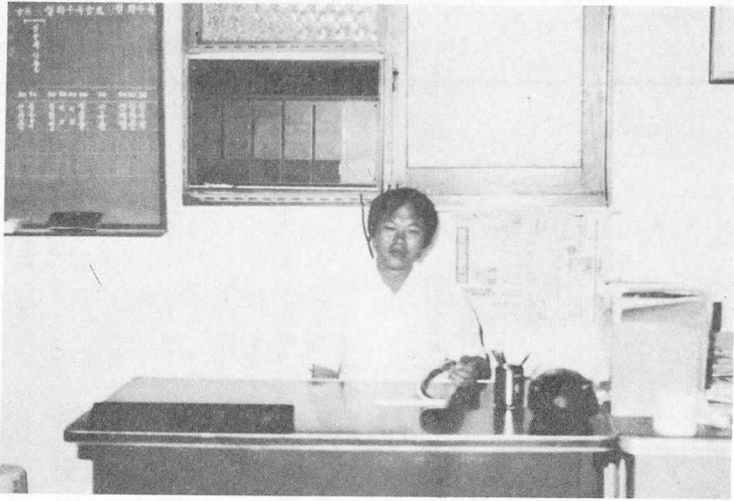
지금은 행정구역상 나주시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나주는 곡창지대인 까닭에 일찍이 노동요(勞動謠)가 발달되어 있으며 현재도 농산물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교통중심지로서 호남 남서부지역의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나주 배(pear)의 맛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 까지 널리 알려져 있다.

계통출하로 안정된 생산기반 구축

금성나주지부(전남 나주시 중앙동98-1 : 전화(0613) - 328080)는 이 지역 양돈인들의 친목단체로 유지되어 오다 지난 1983년 11월에 대한양돈협회 금성·나주지부로 정식 출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모든 지부에서 바라고 실현



▲ 사무실에서 포즈를 취한 전재명 지부장

하려는 계통출하를 금성·나주 지부는 앞다져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실현한 계통출하는 현재 서울의 협진식품과 계약에 의해 출하하고 있는데 물량은 하루에 30두 정도 공급하고 있다. 금성·나주지부는 계통출하를 위해 공동으로 출하차를 구입하였으며 지부장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회원들의 출하 편의를 돕고 있다.

처음에는 계약을 이행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왜냐하면 시세의 변동에 따라 유리할때만 출하하려고 하고 불리할때는 출하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와의 계약 사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이에 뜻있는 몇몇 회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다가는 계통출하가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자발적이며 헌신적인 참여만이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혜택이 돌

아온다"는 것을 역설하며 설득하기에 이르렀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사람 두사람 자발적인 참여자가 늘기 시작하여 현재는 모든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달전에 출하계획을 세우고 있다. 출하계획을 한달전에 확정하기 때문에 회원들은 자기의 출하 예상물량을 한달전에 협회에 통보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날에 출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너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두수가 많은 회원들이 조금씩 양보하여 출하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일년내내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은 힘든 사업을 완수한 전재명 지부장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일시적인 손해를 감수하기로 하고 전 회원이 협조한 덕택으로 지금은 안정적으로 계통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여 계획

된 날짜에 출하를 기피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봐도 좋습니다"며 계통출하는 금성·나주지부가 존속하는한 계속될것이라고 했다.

지부의 이와같은 노력에 협진식품측에서도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매일 일정한 경매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며 출하에 따른 불편한 점이 없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계통출하를 함으로 해서 지부 회원이 얻는 이익은 너무나 많다.

첫째,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다. 물량의 공급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하하는데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안정된 기반위에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계획 생산을 할 수 있다. 출하물량과 시기에 따라 계획적인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계획에 의한 생산을 하므로서 불황이 오더라도 그 피해를 훨씬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물량조절 역할을 한다. 어느 지역이나 물량이 과잉으로 공급되면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계통출하는 물량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게 됨으로 돈가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며 양돈산업의 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이렇게 하

선진지 시찰을 정리화하여 선진사양 기술의 도입에 혼신의 노력

므로 해서 회원이 아닌 양축가도 협회의 계통출하의 덕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금성·나주지부의 계통출하에 따라 인접지역인 무안, 함평, 영암 등지의 양돈농가들도 간접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물량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며 과잉공급이 없기 때문이다.

금성·나주 지부에서는 현재 혼자서 하고 있는 이와같은 사업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인근 군(郡)의 양돈인들도 스스로 협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협회가 없는 지역에도 양돈인 친목회가 대부분 있으므로 자생력을 활성화 시켜 협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회에서도 회원배가운동과 더불어 지부 미 설립 지역에 지부가 설립될 수 있도록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지적됐다.

회원 4 명이 직접 외국에 나가 종돈선발

금성·나주지부는 호남지역 양돈산업을 이끌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히 강하다. 모든 사양기술이라든가 정보가 이곳 금

성·나주지부를 통하여 일반 양축농가에 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자부심에 걸맞게 금성·나주지부에서는 한발 앞선 선진경영을 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뒤질수도 있다는 의외의 사항도 배제하기 위해 선진지 시찰을 정리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선진 사양기술의 도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남에게 뒤진다는 것은 그만큼 게으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안기문 운영위원은 “원래 호남지역 양돈을 일으킨 곳이 나주입니다. 지부를 중심으로 좀더 합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돈개량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방법의 개선 등에 우리 지부만큼 노력을 기울이는 곳도 많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며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종돈개량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다.

금성·나주지부는 지난 연말에 회원 4 명이 직접 미국에서 종돈을 선발해 온 적이 있다. 물론 많은 경비가 들지만 좋은 돼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면은 감수하기로 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직접 선발하는 열성을 보였다.

약 35두의 종돈이 지부 회원들에게 분양되었는데 앞으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다.

영세양축농가에 경영및 기술지도

금성·나주지부는 대부분이 전업규모의 회원이므로 회원들은 웬만한 사양관리 기술과 질병대책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인근의 소규모 양돈농가를 위해서 헌신적인 지도를 해 주고 있다. 새로운 사양기술이 있으면 회원농가에서 일단 사양시험을 거친후 잘 된다고 판단되면 인근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실험계획에 의하여 현재도 발효돈사에 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며 돼지감자의 조사료 이용의 타당성에 관한 실험도 하고 있다.

또한 금성·나주지부는 지부 회원들이 영세 양축농가를 위해 애쓰는 만큼 대규모농장에 대한 요구사항도 다양하다.

기업농에서는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돼지고기의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노동환 감사는 “대규모 농장은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발전과 영세 양축가를 위해서 꼭 돈육수출을 해야 합니다. 국내가 격이 좋다고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가격이 낮을때만 수출을 하려고 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항상 일정한 채널을 통해 수출을 해야 대외 신뢰도도 쌓을 수 있을 뿐더러 국내 양돈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수출을 독자적으로 하기에 여력이 부족한 기업농들은 몇 개 회사가 공동으로라도 수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고 말하고 "기업농들 때문에 양축농가가 피해를 보아서 안된다"고 강조한다.

축협계열화 사업 지금이라도 폐지해야

금성·나주지부의 회원들은 「축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계열화사업은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민들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축산진흥기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축협에서는 농민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유통구조의 개선과 정책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잘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목인하는 것은 죄악」이라고까지 말하며 농민들의 생활이 걸린 생산활동에 축협이 끼어드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하는 회원도 있었다. 축협에서도 차체에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하여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일을 하여 양축농가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것이 앞으로의 축협장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듯.

지부의 발전은 지부장과 회원들의 노력에 비례

금성·나주지부의 전재명 지부장은 지부의 발전은 지부장인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지부를 위해 일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은 뒤로 미루며 협회를 위해 뛰고 있다.

전 지부장은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 지부 사무실에 출근

부를 비치해 두고 있다. 또한 회원 각자의 출근 카드도 만들어 누가 지부에 얼마나 들리는가를 파악하고 있으며 전화 한번 하는 것도 전부 체크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항상 점검을 하여 소홀한 회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

이와같은 지부장의 열성에 많은 회원들이 감복하여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대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지부를 보면 지부장과 회원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이곳 금성·나주지부는 서로 감싸주며 격려해 주고 있다.

어떤 조직도 그 조직의 견고함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구성원의 인화라는 것을 생각하면 금성·나주지부의 전도는 밝다고 봐도 무난할 것 같다.

호남지방의 양돈산업을 이끌고 있는 금성·나주지부의 발전은 곧 호남지방 양돈산업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종돈35두를 미국으로 부터 직접 도입하여
종돈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